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oxship rates rise amid surging Asia-US volumes

미국으로 향하는 아시아의 수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주노선 컨테이너 운임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2월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28.6% 치솟으며, 7개월 연속으로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VLGC rates jump 27% from Middle East but output concerns remain

VLGC(초대형LPG선)의 스팟운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은 악재라고 보도됨. 발틱해운거래소에 따르면 VLGC운임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톤 당 38.07달러(하루 16,895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으나 전월동기대비 하루 1만달러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Qatar's NOC puts key offshore oil project back on the table as tender hatched

Qatar의 North Oil Company(NOC)가 Al Shaheen 유전에 대한 추가 개발 등을 포함한 핵심 EPC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보도됨. Al Shaheen 유전은 카타르의 가장 큰 해양 field로 알려짐. 카타르는 OPEC의 감산 결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 조절 및 개발에도 자유롭게 진행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됨. (Upstream)

Qatar signs long-term LNG supply pact with Chinese state energy giant

Qatar Petroleum은 중국의 Sinopec과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SPA(Sale and Purchase Agreement)계약 하에 카타르는 향후 10년 간 연 2백만톤 가량의 LNG를 Sinopec에 공급하게 되고 시작은 2022년 1월부터라고 보도됨. (Upstream)

흥아해운, 이르면 이번주 매각 계약

흥아해운 채권단이 채무 조정에 합의하면서 이번주 장금상선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3월 26일 채무조정안을 결의하고, 같은 날 흥아해운 예비 인수자인 장금상선 컨소시엄과 SP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차세대중형위성 우주로... '우주 산업화' 시대 열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해 우리 기술로 만든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22일 오후 3시 7분께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보도됨.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500kg 중형급 위성을 표준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개발함. (이데일리)